

※ 본 논술 문제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이화여자대학교에 있습니다. 본교의 서면 허락없이 무단으로 출판, 게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1학기모집 일반우수자전형
논술고사 자연계열 문제지

모집단위 () 학부/학과 수험번호() 이름()

<답안 작성 유의사항>

감독확인

1. 시험시간은 15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하고, 답안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한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음.



이화여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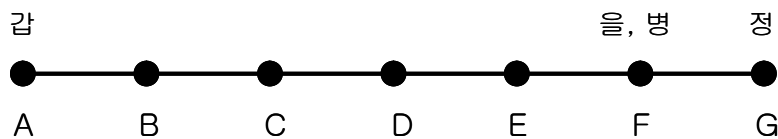
1. 시청 광장에 분수시계를 설치하려고 한다. 분수시계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보라의 5개 물줄기들로 구성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직전까지 작동되도록 한다. 이 분수시계는 매 정시에 물줄기의 조합이 변함으로써 시간을 나타낸다. 항상 3개 이상의 물줄기가 나오고, 매 시간대를 표시하는 물줄기의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수시계를 설계하시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이 분수시계가 24시간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하시오. [10점]
2. 주어진 예산으로 휴대폰, MP3 플레이어, 전자수첩을 각각 하나씩 사고자 한다. 각 물품의 만족도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아래의 표는 휴대폰, MP3 플레이어, 전자수첩의 가격별 만족도를 나타낸다. 90만원의 예산으로 총 만족도가 최대가 되도록 구매하고자 할 때, 구매할 물품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물품의 가격별 만족도>

물품 \ 가격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휴대폰		30	42	50	55
MP3 플레이어	20	30	37	41	
전자수첩	10	19	25	28	30

위의 표와는 다르게 각 물품의 단위가격당 만족도 증가량이 일정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단위가격당 만족도는 휴대폰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그 다음은 MP3 플레이어, 전자수첩 순이다. 총 만족도가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임의의 주어진 예산으로 어떻게 물품들을 구매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3. 아래 그림은 지하철의 노선도이다. 각 역간의 거리와 이동시간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갑은 A역 부근에 살고 을과 병은 F역, 정은 G역 부근에 산다. 갑, 을, 병, 정은 같은 역에서 모이기로 하였다. 이들이 만날 역을 결정함에 있어 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기준에 따라 만날 역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10점]

4. 어떤 정보가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될 때, 각 사람은 앞 사람에게서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다음 사람에게 전하거나 정반대로 전한다고 하자. 도시 A의 시민들이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할 확률은 0.8이고, 정반대로 전할 확률은 0.2이다. 도시 B의 시민들이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할 확률은 0.6이고, 정반대로 전할 확률은 0.4이다. 갑은 ‘많은 사람을 거쳐 전달된 내용이 첫 정보와 동일할 확률은 도시 A가 도시 B보다 높다’고 주장한다. 한편, 을은 ‘아래와 같은 실험으로부터 위의 정보전달 과정의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험내용]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고 한 가운데 특수막이 설치된 상자가 있다. 상자에는 빨간색 연기 분자가 1,000개 들어있고, 단위시간당 일정한 비율의 연기 분자가 특수막을 통과하여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모든 연기 분자가 특수막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시작한다. 특수막 왼쪽의 연기 분자의 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관측한다.

수리적 논리에 근거하여 갑의 주장과 을의 주장의 타당성을 각각 논하시오. [25점]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가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렵פות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놓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듯이 당신을 햇볕 속으로 끌어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 드리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나는 그 편지를 읽어봤다. 또 한 번 읽어봤다. 그리고 찢어버렸다.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 앉아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무진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교육학자인 후지오카 노부가츠 교수, 독일 문학자인 니시오 간지 교수 등을 리더로, 인기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를 광고탑으로 삼은 이 운동은 난징대학살과 중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의 반일세력에 의한 ‘날조’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일본인은 패전에 의해 자국의 근대사를 죄악시하는 ‘자학사관’을 내면화시켜왔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일본인의 긍지’를 되돌려야 하고 자민족 중심의 ‘국민의 역사’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이 세력은 매스미디어를 교묘히 이용하여 정력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자국의 과거 잘못에 눈을 돌리기를 싫어하고, 주변 민족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민족주의적인 풍조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다] 프로이트로 하여금 ‘죽음에의 충동’을 가정하게 했던 인간의 가학 성향들 중에는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규범을 적용하는 유형도 있다. 그 결과 양심의 가책, 즉 경고신호가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통에 정신건강이 나빠지기도 한다. 자신의 과거 소행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책망하기 때문에 줄곧 후회·자책·속죄 욕구 같은 자학적 감정에 시달리게 된다. 무엇보다 과거의 일은 변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책 게임’은 영원히 되풀이된다.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상조작’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자책 게임은 주변을 향해 자신의 높은 도덕수준을 간접적으로 과시하는 일로 해석된다. 인상조작은 자신을 주변에 어떻게 인지시키는가 하는 목적행동을 말한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를 책망할 정도로 엄격한 도덕기준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하고 싶은 것이다. 심리학자 애들러에 따르면 자신을 지나치게 책망하는 것은 ‘자책하고 괴로워하지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술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심한 양심의 가책은 근본을 따져보면 병이거나 비겁함이므로 그리 자랑할 일이 못된다. 결국 양심의 가책은 가끔씩 느껴야 정상이다. 그것이 건전한 초자아를 갖추었다는 증거이고, 자기 인지가 부정확해지지도 않으며, 규범·가치관 면에서도 세상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극단으로 달리지 않는 길이다.

[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있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마] 진정한 후회는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거리끼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책망하는 자책의 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는 일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런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만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일, 즉 인간적 부활은 후회의 감정으로 족하지 않고 자책을 거쳐 참회에 이르러야 가능하다. 후회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지만, 참회는 잘못을 뉘우쳐 마음을 고쳐먹는 단계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회는 누구나 다 하지만, 참회는 자기반성의 심한 고통을 스스로 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5. 제시문 [가]의 ‘나’와 제시문 [나]의 ‘역사수정주의자’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6.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제시문 [라]의 화자가 보여주는 한계를 비판하시오. [10점]

7. 일제시대 군청 직원이었던 김모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딸이 종군위안부로 끌려가는 것을 막았지만 같은 동네에 살던 많은 처녀들이 잡혀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해 지금도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김모씨의 반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주어진 제시문들을 모든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500자 내외) [20점]

2007 수시1학기모집 일반우수자전형 논술고사

I. 전반적인 출제 의도 및 특징

1. 이화여자대학교 논술고사는 고등학생들이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배양한 다양한 지적 능력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개발하여 입학전형 요소로서의 논술고사 양식의 다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장기간 입시에 시달리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그들에게 친숙한 자료를 통해 심리적 부담을 덜 가지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를 위해 모든 제시문의 소재와 범위를 학교 교과과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도록 하였고, 가급적 교과서 내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출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제시문을 직접 선택함으로써 정규 교과과정과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하여 고교 교육 정상화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2. 수시모집 논술고사에서는 학생들의 언어·수리적 사고 능력의 논리성과 합리성, 그리고 논증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언어영역에 중점을 둔 문제에서는 수준 높은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분석력, 여기에 담겨있는 주제와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구성력과 문장 표현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출제하였다. 수리적 사고력을 주로 측정하는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 또는 사회현상 및 자연현상을 제시하여, 그 상황을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 및 수리적, 논리적, 분석적 사고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고교 교과과정의 기초 수리지식과 개념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력이 훈련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 문제의 구성

인문계열의 논술고사는 수리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2개의 문제와 언어영역에 중점을 준 6개의 문제 등 총 8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자연계열은 수리 영역에서 4개와 언어 영역에서 3개 등 총 7문제로 구성되었다.

수리영역의 문제는 가상적이지만 일상생활이나 사회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설정을 주고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서술하도록 하여 과정 중심적 논증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난해한 원리나 어려운 지식을 이용하여 정답을 도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고교 교과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면 누구나가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언어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언어 영역의 2개의 문제 세트는 내용의 이해를 직접 묻는 단순한 질문은 피하고, 한 지문의 부분 또는 전체와 다른 지문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관시키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이해력과 논리적 구성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안에 별도의 제시문을 주고 이것을 주어진 제시문들과 연관시켜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도 측정하였다. 특히 문제에 특정한 조건과 맥락을 부여하여 주어진 제시문과 조건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전에 준비된 상투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논술 답안 작성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문제는 앞에서 답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흡수하여 보다 심층적인 답변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III. 출제 배경 및 의도

[1] (인문/자연 공통)

시청 광장에 분수시계를 설치하려고 한다. 분수시계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보라의 5개 물줄기들로 구성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직전까지 작동되도록 한다. 이 분수시계는 매 정시에 물줄기의 조합이 변함으로써 시간을 나타낸다. 항상 3개 이상의 물줄기가 나오고, 매 시간대를 표시하는 물줄기의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수시계를 설계하시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이 분수시계가 24시간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하시오. [10점]

1번은 일상생활에서 경우의 수를 결정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을 고려하여 분수시계를 설계하는 설정을 통하여 논리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수학에서는 조합이라는 지식을 활용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지식이 없어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시청광장에 5가지 색깔을 나타내는 물줄기가 항상 3개 이상 작동하는 분수시계를 설치함으로써 미적인 환경과 시민들에게 시간대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설정을 주었다. 이러한 설정 하에 분수시계의 설계는 수리적 또는 논리적 사고에 근거하여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쉽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2] (인문/자연 공통)

주어진 예산으로 휴대폰, MP3 플레이어, 전자수첩을 각각 하나씩 사고자 한다. 각 물품의 만족도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아래의 표는 휴대폰, MP3 플레이어, 전자수첩의 가격별 만족도를 나타낸다. 90만원의 예산으로 총 만족도가 최대가 되도록 구매하고자 할 때, 구매할 물품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물품의 가격별 만족도>

물품 \ 가격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휴대폰		30	42	50	55
MP3 플레이어	20	30	37	41	
전자수첩	10	19	25	28	30

위의 표와는 다르게 각 물품의 단위가격당 만족도 증가량이 일정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단위가격당 만족도는 휴대폰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그 다음은 MP3 플레이어, 전자수첩 순이다. 총 만족도가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임의의 주어진 예산으로 어떻게 물품들을 구매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행복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를 모형화하면 제약조건 하에서 함수를 최대화시키는 경우가 된다. 2번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화 시켜 제한된 예산으로 세 개의 물품을 구입할 때에 만족도를 최대로 만드는 경우를 설정하였다. 여기서의 만족도는 경제에서의 효용과 동일한 개념이다. 이 문제에서 단위가격당 만족도의 변화가 제일 큰 물품에 단위비용을 지불하여서 최대 만족도를 얻는 방법을 찾도록 하였다. 함수의 최대치와 기울기의 개념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의도이다.

[3] (자연계열)

아래 그림은 지하철의 노선도이다. 각 역간의 거리와 이동시간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갑은 A역 부근에 살고 을과 병은 F역, 정은 G역 부근에 산다. 갑, 을, 병, 정은 같은 역에서 모이기로 하였다. 이들이 만날 역을 결정함에 있어 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기준에 따라 만날 역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10점]

수도 이전이나 핵 폐기물 처리장 선정, 노사 임금 협상 등과 같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인 값을 찾아내는 수리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이다. 이를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1차원 공간에서 거리가 정수인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 등을 비용으로 고려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합리적 기준을 정의하고 그 정의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4] (자연계열)

어떤 정보가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될 때, 각 사람은 앞 사람에게서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다음 사람에게 전하거나 정반대로 전한다고 하자. 도시 A의 시민들이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할 확률은 0.8이고, 정반대로 전할 확률은 0.2이다. 도시 B의 시민들이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할 확률은 0.6이고, 정반대로 전할 확률은 0.4이다. 갑은 ‘많은 사람을 거쳐 전달된 내용이 첫 정보와 동일할 확률은 도시 A가 도시 B보다 높다’고 주장한다. 한편, 을은 ‘아래와 같은 실험으로부터 위의 정보전달 과정의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험내용]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고 한 가운데 특수막이 설치된 상자가 있다. 상자에는 빨간색 연기 분자가 1,000개 들어있고, 단위시간당 일정한 비율의 연기 분자가 특수막을 통과하여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모든 연기 분자가 특수막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시작한다. 특수막 왼쪽의 연기 분자의 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관측한다.

수리적 논리에 근거하여 갑의 주장과 을의 주장의 타당성을 각각 논하시오. [25점]

우리는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그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매우 많으나, 전달하는 매개체의 정확도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이 문제에서는 이러한 매개체의 정확도를 변수로 설정하여 정보전달의 정확성을 수리적 논리에 근거하여 분석하도록 하였고, 확률과 수열의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서로 달라 보이는 두 상황, 즉, 정보전달 과정과 기체 분자가 이동하는 과정이 같은 원리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대응 관계를 찾음으로써 비교 분석하도록 하였다.

[3-4] (인문계열)

[가] 파이드로스야, 문자에는 나쁜 점이 있고 그런 면에서 그림과 비슷하단다. 그림이 그려낸 화상들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네가 그것들에게 무엇을 묻는다면 아마 점잖게 침묵하기만 할 거야. 문자도 그와 똑같아. 넌 문자들이 뭔가 아는 것처럼 네게 말을 건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네가 무엇을 정말 배울 요량으로 그것이 말한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틀림없이 그것들은 늘 고정적이고 확실적인 내용만을 줄 뿐이야. 그리고 말은 한번 씩어지고 나면 장소를 불문하고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에게나 그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은 자에게나 이리저리 마구 돌아다니게 되고, 결국 그 말이 애당초 어떤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 어떤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지. 그 말은 방임되고 부당하게 욕을 먹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을 낳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해. 왜냐하면 글자로 씌어진 말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도움 능력이 없으니까.

[나] 근대에 접어들어 한반도에서도 문자의 독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제 문자를 통하지 않으면 서민의 일상도 어려워진 것이다. 새로운 시작은 농투성이 무지렁이들과 장돌뱅이들, 개 잡고 소가죽 벗기던 이들, 심지어 그 자식들까지도 학교 문 앞을 기웃대고, 그러다 급기야 모든 사람들이 책이란 걸 읽고, 나아가 글줄까지 굵적거릴 줄 알게 된 일종의 개벽이었다. ‘모든’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한편 그 독재는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이기도 했다. ‘앞의 민주주의’ 말이다.

[다] 구술문화에서는 고도로 예술적이고 인간적 가치를 가진 강력하고 아름다운 언어적 수행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러한 언어적 수행은 일단 쓰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쓰기가 없다면 인간의 의식은 그 잠재능력을 더 고도로 발휘할 수 없으며, 아름답고 강력한 작품을 낳을 수도 없다. 현재까지 세계에 남아 있는 구술성의 문화 가운데, 구술성이 지닌 그 거대하고 복잡하면서도 영원히 접근하기 어려운 힘을 문자성의 도움 없이 실현할 수 있는 문화는 거의 없다. 따라서 구술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그러한 힘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들은 열렬하게 문자성, 즉 문자를 읽고 쓰는 힘을 얻고자 하지만, 문자성의 세계로 옮겨감으로써 구술성의 세계에 속한 것들, 마음을 들뜨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과 또 깊이 사랑을 받아온 많은 것들을 남겨 놓고 떠나게 된다는 사실도 곧 알게 되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계속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인문계열에만 주어진 언어영역의 첫 번째 문제 세트의 제시문들은 모두 말과 글, 구술문화와 문자(인쇄) 문화의 상호관계와 장단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글들이다. 말과 글이 가진 본질, 그리고 그 억압적 혹은 해방적 기능들을 시대적으로 어떻게 달리 파악했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글들을 선택했다. 세 개의 제시문과 문제에 포함된 하나의 인용문은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권에 관한 글에서 발췌되었고 글의 스타일도 대화, 구어적 평론, 격식을 갖춘 산문 등 다양하다. 다양한 시대적 배경과 문체적 특성을 가진 글들 가운데에서 문자에 관한 공통의 아이디어를 파악해낼 수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의 맥락에서 서로 연관지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제시문 [가]는 플라톤의 『대화편』의 한 대목으로서 소크라테스가 문자의 본질에 대해 파이드로스에게 하는 말이다. 여기서 주로 문자의 폐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는 말이 문자화됨으로써 그 본질이 훼손되거나 왜곡된다고 보고 있다. 말은 문자화하면서 그림처럼 가시적인 형태가 되고, 문자라는 기호로 형상화 되면서 그것의 가변성과 융통성을 잃고 확실적인 내용으로 고정된다.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본래 말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화자인데, 그것이 문자라는 물질적 형태를 획득함으로써 해서 화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간, 장소, 독자의 신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말의 문자화를 말의 타락이라고 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말의 생생한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생각했다

제시문 [나]는 문자성(literacy)의 증가와 독서대중의 등장을 한국의 근대화와 연관하여 분석한 천정환의 『근대적 글쓰기』에서 발췌된 글이다. 여기에서는 문자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문자 사용의 필요성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문자의 독재”로 다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이로 인한 지식의 대중화를 “얕의 민주주의”로 비유하면서 문자의 대중적 사용이 근대화에 기여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문자성의 폐해를 역설하는 [가]와는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월터 옹(Walter Ong)의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에서 발췌한 것이다. 옹은 이 발췌문에서 문자가 도입되기 이전의 구술문화에서 더 생생하고 가치있는 언어생활이 가능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문화의 도입이 불가피했다는 것,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자문화가 도입되면 구술문화만이 허용했던 언어행위의 생생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문자문화에 대한 구술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했다는 면에서 [가]의 입장과 공통되며, 문자문화의 계몽성과 불가피성에 대해 주장했다는 면에서는 [나]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3] (인문계열)

제시문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자의 속성은 무엇이며, 그것이 각각의 제시문에서 어떻게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10점]

[가]에서 말이 문자화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유통성이 [나]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문자의 독재’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문자의 속성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가]에서는 부정적 특성으로 [나]에서는 긍정적 특성으로 상반되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이다.

[4] (인문계열)

쥘리 랜도우는 ‘인터넷과 같은 하이퍼미디어는 우리의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능력을 문자적 텍스트에 다시 결합시킴으로써 정보사회에서 구술문화의 장점을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제시문 [다]의 논지를 반박하십시오. [15점]

정보사회의 전자적 매체환경이 문자문화의 장점을 잃지 않으면서도 구술문화의 특성을 되살릴 수 있다고 하는 정보사회 예찬론자의 입장에서 [다]를 반박해 보라고 요구했다. 이는 학생들이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의 공존불가능성을 주장하는 [다]의 논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문자의 본질에 관한 주장들을 정보사회의 새로운 매체적 환경에 관한 논의와 유효하게 연관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5-8 인문계열/ 5-7 자연계열]

[가]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가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놓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듯이 당신을 햇볕 속으로 끌어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 드리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나는 그 편지를 읽어봤다. 또 한 번 읽어봤다. 그리고 찢어버렸다.

털썩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 앉아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무진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교육학자인 후지오카 노부가즈 교수, 독일 문학자인 니시오 간지 교수 등을 리더로, 인기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를 광고탑으로 삼은 이 운동은 난징대학살과 종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의 반일세력에 의한 ‘날조’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일본인은 패전에 의해 자국의 근대사를 죄악시하는 ‘자학사관’을 내면화시켜왔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일본인의 긍지’를 되돌려야 하고 자민족 중심의 ‘국민의 역사’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이 세력은 매스미디어를 교묘히 이용하여 정력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자국의 과거 잘못에 눈을 돌리기를 싫어하고, 주변 민족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민족주의적인 풍조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다] 프로이트로 하여금 ‘죽음에의 충동’을 가정하게 했던 인간의 가학 성향들 중에는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규범을 적용하는 유형도 있다. 그 결과 양심의 가책, 즉 경고신호가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통에 정신건강이 나빠지기도 한다. 자신의 과거 소행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책망하기 때문에 줄곧 후회·자책·속죄 욕구 같은 자학적 감정에 시달리게 된다. 무엇보다 과거의 일은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책 게임’은 영원히 되풀이된다.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상조작’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자책 게임은 주변을 향해 자신의 높은 도덕수준을 간접적으로 과시하는 일로 해석된다. 인상조작은 자신을 주변에 어떻게 인지도시키는가 하는 목적행동을 말한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를 책망할 정도로 엄격한 도덕기준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하고 싶은 것이다. 심리학자 애들러에 따르면 자신을 지나치게 책망하는 것은 ‘자책하고 괴로워하기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술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심한 양심의 가책은 근본을 따져보면 병이거나 비겁함이므로 그리 자랑할 일이 못된다. 결국 양심의 가책은 가끔씩 느껴야 정상이다. 그것이 건전한 초자아를 갖추었다는 증거이고, 자기 인지가 부정확해 지지도 않으며, 규범·가치관 면에서도 세상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극단으로 달리지 않는 길이다.

[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마] 진정한 후회는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거리끼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책망하는 자책의 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는 일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런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만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일, 즉 인간적 부활은 후회의 감정으로 족하지 않고 자책을 거쳐 참회에 이르러야 가능하다. 후회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지만, 참회는 잘못을 뉘우쳐 마음을 고쳐먹는 단계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회는 누구나 다 하지만, 참회는 자기반성의 심한 고통을 스스로 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공통으로 출제된 문제 세트의 제시문들은 모두 부끄러움이나 반성, 책임과 관련된 글들에서 발췌한 것이다. 다양한 장르의 글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언어 논술 고사의 목적에 충실하여 소설과 시, 논설문, 이문서 등에서 다양하게 지문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원칙에 준하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제시문(김승옥의 <무진기행>, 윤동주의 <서시>)을 많이 포함시켰다.

제시문 [가]는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의 결말로서, 고향 무진으로 돌아와 서울에서의 삶에 회의와 반성을 보였던 주인공이 서울로 귀경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도시에서의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무진에서 만난 여성인 하인숙에 대한 애정을 억누르고 출세와 명예를 보장해주는 아내가 있는 서울로 되돌아가는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은 부끄러움이다. 제시문에서 ‘나’가 하인숙에게 보내려던 편지를 찢는 것도 그녀에게 보여준 자신의 위선에 대한 환멸 때문이다. 결국 이 소설은 물질 만능주의나 자본주의화로 인한 자아 상실감과, 이상이 아닌 현실의 축을 선택한 자신의 왜소함에 대한 주인공의 부끄러움을 통해 현대물질 문명을 비판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전쟁 책임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글(다카시다 테즈야, <일본의 전후 책임을 묻는다>)로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자신을 ‘날조’와 ‘자학’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자국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음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일본이 자민족중심주의를 토대로 전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일본인들의 태도에 대한 필자의 비판을 읽을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지나친 자책이나 부끄러움, 반성이 오히려 병이나 비겁함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글이다. (요리후지 가츠히로, <현명한 이기주의>)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상조작’의 측면에서 볼 때 극단적이고 부정확한 자아비판이나 반성은 오히려 자신의 도덕성을 과시하는 것이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라]는 윤동주의 <서시> 전문이다.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현실 극복 의지를 표현하는 시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는 화자의 태도를 통해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한 인식과 역사 속의 자신에 대한 반성,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김용석의 <두 글자의 철학>에서 뽑은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단순히 후회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는 참회의 단계로까지 발전해야 진정한 자기 반성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후회가 자책을 불러오고, 자책을 통해 참회에 이르는 용기를 통해서만이 다시 태어나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5] (인문/자연 공통)

제시문 [가]의 ‘나’와 제시문 [나]의 ‘역사수정주의자’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가]에서 화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성의 성격과 [나]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의 반성에 대한 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다. [가]의 화자의 반성은 자신이 떠나옴으로써 이루어지는 이별이 감정적인 것임을 강변하는 자신의 편지가 얼마나 교활한 자기합리화인지, 그에 비해 ‘당신은 무진업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표지판의 관례적인 인사말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는 얼마나 진실인지를 불현듯 깨닫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서술되어 있다면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고, [나]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의 경우는 다른 일본인들의 정당한 역사적 반성을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면서 반성의 불필요성 혹은 부당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가]의 화자와는 대조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문제 6 (인문/자연 공통)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 제시문 [라]의 화자가 보여주는 한계를 비판하시오. [10점]

[다]의 내용, 즉 진솔한 반성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과도한 반성은 오히려 자기합리화나 자기 과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라]의 화자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통 드높은 도덕성과 투철한 애국심으로 존경받는 운동주 시의 화자를 지문에서 설명되는 반성의 심리적 메카니즘을 활용하여 부정적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의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문제 7 (인문계열)

다음 글을 토대로 제시문 [마]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10점]

막스 베버는 심정윤리에 반대하여 책임윤리를 주장하였다. 베버가 공격하는 심정윤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구체적 행동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도덕적 의무와의 일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반면에 책임윤리는 행동에 미칠 결과와 그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정치가가 오직 고귀한 심정만을 고수할 뿐 그것이 초래하는 사회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책임윤리는 그러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

문제7은 문제 안에 인용된 막스 베버의 심정윤리와 책임윤리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그것을 반성의 문제에 정확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지문 [마]는 반성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그것들이 진정성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지만, 막스 베버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반성들이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한 끝내 심정윤리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답안의 핵심이다.

문제 8(인문계열)/ 문제 7(자연계열)

일제시대 군청 직원이었던 김모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딸이 중군위안부로 끌려가는 것을 막았지만 같은 동네에 살던 많은 처녀들이 잡혀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해 지금도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김모씨의 반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주어진 제시문들을 모두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500자 내외) [20점]

문제8은 제시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반성의 방식들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문제에 포함된 구체적 사례에 적용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김 씨의 반성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자기의 딸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남들은 방치했다는 사실과 관련된 이기성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의 반성이다. 그의 반성은 자기 딸을 구했다는 사실보다는 남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집중되어있다. 남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가]의 자기반성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아버지가 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반성의 명분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나]에서처럼 정당한 자기반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소지도 없지 않다. 김모씨의 자기반성이 [마]에서 분류하는 대로 후회에서 자책으로, 자책에서 참회로 그 정도가 심화될수록 사실상 [다]에서 말하는 과도한 반성으로 인한 교묘한 자기합리화로 귀결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김모씨의 반성의 또 하나의 내용은 역사적인 차원의 반성이다. 자기 딸이 참여했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에 자신이 중군위안부의 모집활동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김모씨가 개인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일제의 지배와 중군위안부 제도에 대한 책임을 김모씨 혼자에게 모두 돌릴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나]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이라면 김모씨의 ‘참회’를 ‘자학’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반성의 불필요성에 대한 주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김모씨가 딸을 구한 것은 용감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중군위안부를 모집한다는 사악한 사업에 부역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역사적 범죄이기 때문에 [다]의 ‘자책게임’이나 [라]의 완벽한 도덕적 이상이 가져오는 부끄러움과는 거리가 멀다. 김모씨의 개과천선이 [마]에서 얘기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반성으로서의 ‘참회’에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참회의 결과로서 어떤 의미있는 변화가 다가오지 않는다면 막스베버가 말하는 책임윤리의 관점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